



김 제 중 앙 교 육 통 신

성폭력 예방 안내문

교무실 063-546-4851
행정실 063-546-4850
<http://www.kim-ja.es.kr>

스스로 배우고, 더불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9월 19일(월)~ 23일(금)까지 성폭력예방 집중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실시합니다. 남녀 및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는 성폭력은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친족간의 성폭력, 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 안내드리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성폭력과 그루밍 성폭력

1.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행위.
- 범위 : 성희롱, 성추행,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음란물 보이기,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언어적 희롱(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 유포 등) 등

2. 성폭력의 판단기준 : '동의' <-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 동의는 선택에 기초한다.
- 동의는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 동의는 오직 동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 동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 만약 당신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예'는 의미가 없다.
- 만약 당신이 '아니오' 라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없다면 '예'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

3. 그루밍 성폭력

-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쉽게 저지르기 위해 꾀어내는 기술
-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폭력 수법
- 그루밍 과정의 6단계
 - 1) 피해자 고르기 : 아동의 욕구 및 취약점 파악
 - 2) 피해자 신뢰 얻기 : 관심 나누기, 친분 만들기
 - 3) 욕구 충족해 주기 : 칭찬하기, 선물 주기, 경제적 지원 등
 - 4) 고립시키기 : 비밀 만들기
 -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함정 만들기- 신체 사진 주고받기 등
 - 6) 통제 유지하기: 비밀 유지, 조종하기, 체념시키기, 협박하기

II. 디지털 성폭력

1. 디지털 성폭력

-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 디지털 성폭력의 종류
 - 가. 불법촬영: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
 - 나. 유포 협박: 불법 등의 촬영물로 유포하겠다고 겁주기
 - 다. 유포: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탑재하기 또는 인터넷에 퍼뜨리기
 - 라. 소비: 촬영물을 보거나 저장하기
 - 마.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2. 디지털 성폭력 예방

- 가. 개인 정보를 절대 주지 않기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 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기, 혹시 대화 도중 싫은 느낌이 들면 채팅하지 않기
- 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
- 라. 컴퓨터에는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마. 디지털 예절 지키기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 부적절한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삼가야 한다.
 - 음란물 관련 내용을 올리지 거나 보지 않는다.
 -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는다.

Ⅲ. 또래 성폭력

1. 또래 성폭력

-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또래관계에서 친구가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하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장난, 게임, 놀이를 할 때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또래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2. 또래성폭력 예방

- 가. 평소 친구의 말이나 기분, 생각을 존중한다.
 -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 친구는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 나. 친구가 싫다고 말하면 즉시 멈춘다.
 - 친구의 '아니오' 는 정말 '아니오' 로 받아들인다.
- 다. 타인의 신체는 어느 부위이든지 허락 없이 만질 수 없다. 신체나 옷 접촉시 동의를 구한다.
- 라. 친구의 행동으로 내가 상처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이야기 한다.
 -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종이에 써서 전달한다.
- 마.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친구가 상처받았다면 반드시 사과한다.
- 바. 성적행동이나 말장난 등을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함께 따라하지 않는다.
 - 방관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그 행동은 성폭력/폭력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 선생님께 즉시 말씀드린다.
 - >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 사.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한다.

IV. 친족 간 성폭력

1. 친족이란 : 법률상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 친부, 의부, 친형제, 시부
2.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성폭력
 - 대부분은 강제추행과 강간이다.
3.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특성
 - 가.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대부분 강제추행의 형태로 시작된다.
 - 나. 범죄가 발생한 후로 많은 시간이 경과된 이후 범죄사실이 인지된다.
('1년 미만' 24.1%, '10년 이상 경과' 55.2%)

어린 시절 자신이 당한 것이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몰랐던 피해자가 이후 교육에 의하여 과거에 당한 일이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해자의 회유 또는 간단한 협박에도 범죄에 피해를 당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 달에서 많게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기도 한다.

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되거나 문제가 된 사안이라 증거가 부족하고, 어린아이의 진술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해자가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라. 범죄 사실을 알아도 정말 가까운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 게다가 이루어진 범죄가 강간과 같이 강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라면 **잘 신고가 되지 않는다.**

마. 범죄사실이 밝혀져 처벌이 되어도,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대부분이 **가족이 파탄으로 이른다.**

4. 친족 간 성범죄에 관련된 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 최장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증거인멸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된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친족 간 성폭력을 예방을 위한 노력

-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도록 한다.
- 아무리 친밀한 가족, 친인척이라 해도 경계 존중을 꼭 지키도록 한다.
- 과도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는다.
-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 느낌(좋다. 싫다)을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 성 평등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한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등의 이유로 강요하지 않는다)

V.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1.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 약물의 효과를 악용하여 성인이나 아동에게 학대뿐만 아니라 약탈, 강도, 성범죄 등의 각종 범죄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 인지 또는 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의식이 없거나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

- 수면진정제, 졸피뎀, 마취제, 항우울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알러지약)**
- 음료에 약물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3.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련된 법

- 마약류 관리법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 2가지 모두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다.

4.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음료는 자신이 개봉한다. 이미 열려있거나 타인이 개봉한 음료는 피한다.
- 잘 모르는 타인이 주는 음료는 받지 않는다.
- 항상 자신의 잔이나 음료를 들고 다니며, 화장실에 가져가야 하더라도 직접 휴대한다.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거나, 음료의 색이 전과 다르거나, 잔 밑에 잔여물이 남아있다면 마시지 않는다.
-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자신의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2022. 9. 19.

김 제 중 앙 초 등 학 교 장